뒤르케임(E. Durkheim)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 연구

백승대* · 안태준**

〈차 례〉

1. 서론
2. 직업집단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사적 측면
3. 직업집단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도덕적 측면
4. 길드의 형성과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뒤르케임(Durkheim) 직업집단론의 현실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현대사회의 아노미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업집단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직업집단은 도덕적 규범을 실행할 구체적 실체로 여겨졌다. 이러한 주장은 길드에서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업집단 재구성의 현실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직업집단은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될 것이며, 도덕적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의 구성은 역사적 상황이나 구성원 간의 관계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도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교신저자)

덕적 기능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길드에는 도덕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뒤르케임(Durkheim)이 주장했던 것처럼 길드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었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길드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들의 목적 달성은 강한 단결력을 필요로 했다. 그런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상당히 평등한 존재였다. 이러한 조건이 그들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더 강화했다. 강력한 단결력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주제어: 직업집단, 현실적합성, 아노미 상태, 길드, 도덕적 기능, 상호의존성

1. 서론

왜 다시 직업집단[1]인가?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케임(Durkheim)이 1902년『사회분업론』2판 서문에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벌써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다시 직업집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근대사회에 대한 뒤르케임(Durkheim)의 문제의식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는 근대사회를 경제적 기능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사

1) 뒤르케임(Durkheim)은 직업집단 개념을 때로는 'corporation(동업조합)으로, 또 때로 는 'groupements professionnels(직업집단)'로 표기했다. 그리고 영문 번역서에는 'occupational associations(직업단체)'로 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집단'으로 통일해 사용했고, 일부 맥락에 따라 '동업조합'으로 표기했다. 직업집단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회로 보았다.[2] 열등한 계급이 경제적 기능을 책임졌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종교적·행정적·군사적 기능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그 대신 과학적 기능만이 경제적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생활은 아노미[3]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직업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변호사, 판사, 군인, 교수, 의사, 성직자 등에게는 직업윤리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노동자와 기업주의 관계, 경쟁하는 기업 간의 관계, 실업가와 일반 공중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윤리적 시각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영역이 가장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 영역의 다양한 세력이 서로 부딪치면서 억압되고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강한 세력이 가장 약한 세력을 부수거나 복종시키는 데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존속은 경제계를 넘어 전체 사회의 공공도덕을 타락시켰다.

뒤르케임(Durkheim)이 묘사한 경제 영역의 제1차적 중요성과 아노미적 상 황은 그가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다. 오늘날 경제 영역의 중요성은 개별 국가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정책은 세계를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묶어놓았다. 이러한 흐름은 구공산권의 몰락으로 더욱 더 가속화되었고, 개별 국가의 기능 위축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날 국민에게 실존적 안전을 약속할 수 있는 국가의 가능성과 의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4] 실존적 안전을 확보(인

---

2) 뒤르케임 지음, 민문홍 옮김, 「제2판 서문: 직업집단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pp. 17-20.

3) 아노미(anomie)는 기존 규범의 규제력 상실과 새로운 규범의 미확립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Bauman, Z.,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Polity Press Ltd., 2011, p. 18.

간 사회에서 정당하고 품위 있는 위치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배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하는 임무는 이제 개개인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엄청난 위험과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경제영역에서의 아노미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내몰린 노동과 자본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맹신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이윤 획득의 최적지를 찾아 세계를 배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동은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직업의 비정규직화, 구조조정(감원)의 일상화 등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도덕적 기능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5]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갑을관계' 논란[6]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

---

5) 김태근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까지 숭배되면서 민주화 이전까지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도 나왔던 비판적 목소리가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논리 속에 포섭되었다. 이제 사회에는 윤리가 사라지고 오직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김태근,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7호, 2013, p. 433.)

6) '갑을 문화'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갑'과 '을'이란 원래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를 일컫는 말이다. 제대로 된 계약에서는 갑과 을의 지위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결과를 좇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갑은 강자고 을은 약자다. 갑은 을을 부리는 '고객'이고, 을은 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때문에 갑의 횡포가 숱하게 벌어지곤 한다. 라면 상무 사건, 경주빵 회장 호텔 종업원 폭행,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벌어졌던 '갑질'만 꼽아 보아도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사설 속으로: '갑을문화'」, 『한겨레신문』, 2013년 5월 28일자 27면.).

직업집단은 뒤르케임(Durkheim)이 당시 프랑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이다.[7] 그에 따르면 당시의 사회적 위기는 두 가지의 역사적 기원을 가진다. 우선 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도덕의 미정립으로 도덕적 위기에 처한다. 이는 산업화와 분업화의 진전으로 산업과 그 기능이 전통적 가톨릭 도덕과 분리된 데에서 기인하다. 전통적 도덕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덕은 확립되지 않은 아노미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는 프랑스 혁명의 오류에서 발생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의 동업조합이 가진 일시적 단점만을 문제 삼아 동업조합을 파괴한 데서 기인한다. 당시의 동업조합은 생산과 노동자의 자유를 속박하고, 특수 지위를 누리는 집단으로 비춰졌다. 집단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구체제와 함께 파괴되어버렸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의 아노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업조합을 다른 형태의 직업집단으로 재구성해야 했다. 아노미 상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규칙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담당할 집단은 직업집단뿐이었다. 경제적 직업활동이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직업집단이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경제 활동은 경제 영역의 기능과 욕구를 알며, 그것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친밀한 집단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직업직단의 역사적 이름은 길드이다.[8] 고대 로마와 중세의 길드는 구성원을 위해 도덕적 환경을 창조해 주었다. 프랑스 사회의

---

7) 민문홍, 『사회학과 도덕과학』, 민영사, 1994, pp. 60-62.

8) Durkheim, E.,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Translated by Cornelia Brookfield, Routledge & Kegan Paul, 1992, p. 17, p. 22, p. 31. 길드는 상공업자들의 상호부조적인 동업조합이다.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 부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길드가 오랫동안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또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진행시킨 조건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프랑스 사회의 조건 속에서 길드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뒤르케임(Durkheim)은 직업집단의 필요성과 형성의 정당성을 길드에서 찾고 있다. 이는 그의 직업집단에 대한 연구가 길드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늘날 직업집단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도 길드의 분석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직업집단 과 길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9]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는 한편으로 직

9) 기존의 주요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ddens는 「Durkheim's political sociology」에서 뒤르케임(Durkheim) 이론의 실질적인 단점은 구체성의 결여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론에 대한 Giddens의 비판 역시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Giddens, A., "Durkheim's political sociology", *EMILE Durkheim: Critical Assessments*, Edited by Peter Hamilton, Routledge, 1990, p. 211). Turner는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의 「영문판 제2판 서문: 에밀 뒤르케임에 대한 해석」에서 "직업 결사체들"에 대한 논의를 길드와 함께 진행한다. 하지만 Turner도 길드의 도덕적 기능과 역사적 출발점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지, 고대 로마와 중세 시대에 왜 길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결여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길드가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없다(Turner, S. B.,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Interpreting Emile Durkheim",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Translated by Cornelia Brookfield, Routledge & Kegan Paul, 1992, p. xxxii). 민문홍은 『사회학과 도덕과학』에서 뒤르케임(Durkheim)의 「제2판 서문」을 인용하며 기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직업집단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논할 뿐, 길드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있다(민문홍, 1994, 앞의 책, pp. 63-64). 또한 그는 『사회분업론』의 옮긴이 해제에서도 직업집단이 길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 나타냈을 뿐, 뒤르케임(Durkheim)

업집단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문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드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지만 길드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한 뒤르케임(Durkheim)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해서 소개할 뿐이다. 길드 형성의 역사적 조건을 검토하고 그 연장선에서 직업집단 형성의 현실적합성을 탐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점은 뒤르케임(Durkheim) 자신조차도 소홀히 다룬 부분이다. 그는 길드가 역사적으로 수행해 왔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치우쳐, 길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길드의 도덕적 기능이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은 직업집단의 재구성에 대한 그의 불철저한 논의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뒤르케임(Durkheim)이 언급한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직업집단 형성의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직업집단 형성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뒤르케임(Durkheim)이 제시한 길드의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직업집단 형성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언급한 길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민문홍, 「옮긴이 해제: 에밀 뒤르케임의 생애와 사상」,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p. 671). 김태수는 뒤르케임(Durkheim) 직업집단에 대한 한 연구에서 "많은 논평자들은 Durkheim이 직업집단을 보는 시각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직업집단의 현실성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뒤르케임(Durkheim)의 관심은 미래에 재건될 혹은 재건되어야 할 직업집단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철저히 규범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며 직업집단의 현실성 문제를 비껴간다. 즉,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은 '당위성'의 문제이지 '현실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김태수, 「뒤르케임과 민주주의: 직업집단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가을/겨울, 2008, p. 301).

2. 직업집단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사적 측면

기존 연구는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직업집단의 유용성과 현실적 적용에 치중했다. 길드에 대해서는 뒤르케임(Durkheim)의 주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뒤르케임(Durkheim)은 직업집단을 길드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파악했으며, 길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직업집단의 형성과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집단에 대한 올바른 논의는 길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동반해야 한다. 길드는 직업집단의 오래된 미래며, 직업집단은 길드의 미래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뒤르케임(Durkheim)의 저작 가운데 『사회분업론』의 「제2판 서문: 직업집단에 관한 몇 가지 고찰」과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을 중심으로 직업집단과 길드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그의 두 저작은 직업집단과 길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뒤르케임(Durkheim)은 길드의 재조직화만이 당시 프랑스 사회의 아노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길드에 대한 당시 프랑스인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길드는 구성원의 특권과 독점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10] 길드는 단지 공리주의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직업의 물질적 이익에만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길드의 부활은 단순히 개인 이기주의를 조합 이기주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뿐이었다. 당시 프랑스인은 길드가 (그들의 가장 최근 시기의 마지막 몇 년에 있었던 것처럼)[11] 자기 특권과 배타적 권리만을 고수하고, 이것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

10) Durkheim, 1992, op. cit., pp. 19-20.
11) 굵은 글씨체 강조는 필자가 했다.

주 편협하게 직업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으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조합조직이나 그 구성원의 도덕성에 그리 좋은 반응을 낳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리고 사실 길드의 여러 규제가 악용된 때도 있었다.[12] 이런 규제가 유용하기보다는 성가시게 되고, 직업의 훌륭한 명성과 구성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두머리(the masters)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때(18세기)[13]도 있었다.

뒤르케임(Durkheim)도 길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성원만의 특 권과 독점에 몰두하고, 심지어는 길드 내의 '우두머리'의 특권만을 위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조직되는 길드의 도덕적 역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위의 글 강조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러한 길드의 문제점을 그 당시의 일시적인 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제도라도 일시적으로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14] 이것을 그 제도의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는 특정 동업조합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짧은 동안에만 진실일 수 있었던 것을 모든 동업조합에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을 삼갈 필요가 있다. 특히, 당시 프랑스인이 알고 있었던 길드의 문제점은 길드 조직의 고유한 특징도 아니다. 어떤 제도라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15] 제도란 새로운 시대의 여러 조건과 마주쳤을 때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발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도의 여러 자원 사이에는 지나친 긴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이 제도가 책임질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성은 사라

12) Durkheim, 1992, Ibid., p. 23.
13) 굵은 글씨체 강조는 필자가 했다.
14) 뒤르케임 지음, 민문홍 옮김, 앞의 논문, 2012, p. 30.
15) Durkheim, 1992, op. cit., p. 23.

진다. 이것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무익하다고 선언하며 멀리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뒤르케임(Durkheim)은 길드의 문제점을 일시적이며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서 나타난 것으로 인식했다. 길드의 특권과 독점, 길드 내의 특정 장인에 대한 특혜는 오랜 길드의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난 부작용으로 생각한다. 11~12세기에 다시 등장한 길드가 13세기의 번성기를 거쳐 18세기까지 발전했으며, 길드의 문제점은 이 가운데 마지막 시기에 잠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길드의 폐지가 아니라 새로운 개혁을, 직업집단으로의 부활을 주장했다. 하지만 길드의 문제점은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길드의 전성기인 13세기를 지나,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가 되면 길드의 여러 문제가 속속 드러났다. 길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뒤르케임(Durkheim)이 주장했던 것처럼 18세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장인은 길드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장인은 규모가 큰 작업장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자, 다른 길드를 운영했다.[16] 이를테면, 런던의 12개 동업조합(Livery Company), 파리의 6개 수공업자 단체(Corps de Métier), 피렌체의 아르티 마기오리(the Arti Maggiori)가 그랬다.[17] 게다가 장인은 도제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길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18] 수공업자 길드 초창기에는 모든 도제가 장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14세기 말엽이 되면, 다수의 길드에서는 장인의 자식이나 사위만이 장인이

16) Painter, S., *A History of the Middle Ages: 284~1500*, Alfred A. Knopf, 1962, p. 230.

17) Huberman, L., *Man's Worldly Goods: The Story of the Wealth of Nations*, Monthly Review Press, 1936, p. 66.

18) Painter, 1962, Ibid., p. 230.

될 수 있었다. 많은 직인이 그들의 인생을 직인으로서 허비할 수 밖에 없었다. 견습 기간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도제라고 하더라도, 연고가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 장인으로 독립하지 못했다.[19] 이들의 대부분은 '직인'(journeyman : 일당journée을 받고 일한 데에서, 그러한 명칭을 얻었다)이나 '요맨'(yeoman)으로서 그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1400년에 아미앵 시의 칠장이와 조각가 길드의 회칙은 이러한 사실을 생생히 증명한다.[20] 보통 도제는 3년간 도제살이를 하고 걸작품(chef d'œuvre)을 제출하고 25리브르를 지불해야 장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장인의 아들이 그 직업을 아미앵 시에서 시작하고 계속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경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단지 10리브르만 내면 족했다. 파리의 식탁용 천을 짜는 직공의 회칙은 이러한 직인 배제의 완결판이었다. 장인의 아들만이 천을 짜는 장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3세기부터 길드 조직은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이고 편협한 과두제 조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21]

직인은 그들만의 조합으로 맞섰다.[22] 장인으로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고, 장인 마음대로 직인을 다루기 시작하자 그들은 장인을 증오했다. 직인과 장인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대립했다.[23] 직인은 그들만의 조합을 조직했다. 장인이 제조업을 독점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인은 그들의 노동을 독점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직인의 노력은 장인과 도시 당국의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도시 당국은 직인 조합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1396년 런던

19) 포스탄 지음, 이연규 옮김, 『중세의 경제와 사회』, 청년사, 1989, p. 309.
20) Huberman, 1936, op. cit., p. 67.
21) Renard, G., *Guilds in the Middle Ages*, G Bell & Sons Ltd., 1918, pp. 39-40.
22) Painter, 1962, op. cit., p. 230.
23) Huberman, 1936, Ibid., p. 67.

에서 마구를 만드는 장인과 직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24] 직인은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직인에게 그 직종 장인의 지배와 규제를 받을 것을 결정했다. 직인에게는 어떠한 단체, 집회, 조합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일을 하면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했다. 프랑스의 리용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25] 1541년에 리용에 거주하는 도제와 직인 인쇄공은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식사를 위해 단결했다. 그러나 리용의 시장과 시의원과 주민들은 프랑수아 1세에게 호소해서 이들을 억압했다. 프랑수아 1세는 법률로서 도제와 직인 인쇄공의 행동을 규제했다. 앞으로 인쇄공 직인과 도제는 서약을 해서도 안 되고, 독점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두어서도 안 되고, 어떤 깃발이나 상징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장인의 집과 부엌 이외에는 모여서도 안 되며, 5명 이상이 모이려면 법정의 동의와 허가를 얻어야 했다. 직인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야 하며, 중간에 그만두거나 파업을 해서도 안 되었다. 이를 어기면 독점 행위자로 투옥・추방・처벌되었다.

도시 당국의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장인의 도시 지배에서 기인한다.[26] 더 큰 길드의 조합원은 자기 길드를 지배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정부(the municipal government)까지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15세기에 도르드레히트와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에서 시 정부는 순전히 화폐 귀족 사회(money aristocracy)와 족벌 과두제(family oligarchy)가 되었다. 고정된 소수 회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시의 관리를 지명하고 시장을 선출했으며, 이런 수단을 이용해 도시 행정을 통제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

---

24) Bland et al., *English Economic History, Select Documents*, Compiled and edited by Bland et al., G Bell & Sons, 1914, pp. 138-141.

25) Huberman, 1936, op. cit., p. 68.

26) Huberman, 1936, Ibid., p. 66.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네덜란드에서의 진실은 독일에서도 진실이었다. 독일의 뤼베크(Lübeck)에서는 상인과 부유한 시민만이 도시를 지배했다. 시의회는 입법, 최고 재판소, 도시민의 과세를 통제했다. 시의회는 무제한의 권력으로 도시를 지배했다.

길드의 특권과 독점의 폐해는 아주 오래된 역사다. 일찍이 장인은 길드 내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도제와 직인에게 불공정한 규칙을 도입했으며, 도제와 직인의 정당한 요구와 저항을 힘으로 억압했다. 크고 부유한 일부의 길드와 장인은 도시 당국을 장악해 그들의 특권과 독점을 지키는 데 악용했다. 따라서 길드의 폐해는 뒤르케임(Durkheim)의 주장처럼 "가장 최근 시기의 마지막 몇 년 간" 또는 "18세기"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길드의 전성기인 13세기를 지나자 길드의 폐해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현상이 18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훨씬 더 가깝다. 길드에 대한 당시 프랑스인의 역사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지나치게 길드의 역사를 미화할 필요는 없었다. 길드의 도덕적 장점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다. 그 장점이 오래 동안 유지되었느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제도의 장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면, 그것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드의 전성기에 드러난 도덕적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 그러한 능력이 쇠퇴하고 소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직업집단의 부활과 도덕적 기능의 성패는 이러한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3. 직업집단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도덕적 측면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 계획의 핵심은 길드의 고유한 기능인 도 덕적 역할의 부활에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업조합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 조직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영향력 때문이다.[27] 단순히 길드를 자기 특권과 배타적 권리만을 고수하는 조직으로 보거나, 또 이러한 것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조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28] 이러한 결함은 길드 역사의 일정한 순간에 특정한 길드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결코 모든 길드 조직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결사체가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큰 힘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결사체에서 나온 유용한 결과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결코 그것이 결사체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 고대 로마시대의 길드와 마찬가지로, 중세시대의 길드도 구성원을 위해서 도덕적 환경을 형성했다.[29] 길드 기금의 일정 부분은 자선사업에 사용되었다. 파리의 요리사는 자기 과료(科料)의 1/3을 할애하여, 직업 상실이나 노령 등의 불운을 겪고 있는 같은 직종의 늙은 빈자를 지원했다. 사업을 망친 대장장이에게 200리브르를 무료로 대출하는 대장장이 계정에 참여한 참가자의 명부가 18세기에도 존재했다. 장인과 도제·직인의 의무도 각각의 특정한 직업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었고, 장인 간의 의무도 있었다. 도제·직인은 자의적으로 길드에서 탈퇴할 수 없었다. 모든 길드는 의무연한을 끝내지 못한 직공(도제)의 고용을 금했다. 이를 어기면 장인과 직공(도

27) 뒤르케임 지음, 민문홍 옮김, 앞의 논문, 2012, p. 29.
28) Durkheim, 1992, op. cit., p. 20.
29) Durkheim, 1992, Ibid., pp. 22-23.

제) 모두 무거운 벌금을 부과 받았다. 물론 직공도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마공의 해고는 그 동업조합의 직공 10명과 장인 4명의 인가가 필요했다. 야근의 허용 여부도 각 동업조합에 따라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금지된 경우라면, 장인이 직공에게 밤늦도록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었다. 직업적 정직함을 보장하는 규정도 있었는데, 고객을 기만하거나 상품이 진품인 것처럼 꾸미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직업 집단이 진정으로 도덕적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길드 역사의 많은 시기에서 도덕적 영역은 주요한 역할 영역이었음에 틀림없다.[30]'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직업집단의 부활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역사적으로 길드의 주요한 기능은 독점권 행사와 구성원의 권리 보호였다.[31] 길드의 도덕적 기능, 즉 가격과 품질 그리

30) 당시 수공업자 길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런던의 무두장이 길드의 1346년도 회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판이 좋았던 사람일 경우, 나이가 들거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가난해졌을 때 그는 생계를 위해 매주 7페니의 돈을 지급 받는다. (2) 외지인은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도제나 시민권 소유자는 예외로 한다. (3) 장인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의 조수를 계약 기간 중에 데려가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 그 일거리를 완성해야 한다. (4) 만일 장인에게 불순하거나 거역하는 조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앞에서 조수는 행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5)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명의 감독관을 선출한다. 감독관은 그 해의 작업·직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감독하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앞에 출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서해야 한다. 부지런히 문의하고 조사할 것, 우정이나 증오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발견한 그 직업의 불이행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충실히 진술할 것을 선서한다. 또 그들은 모든 불량 제품과 가짜 제품을 몰수해야 한다. (6) 정식으로 도제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Bland et al., 1914, op. cit., p. 136.).

고 고용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길드의 주요한 기능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기능이었다. 길드는 구성원을 대표해 집단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길드에 참여한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길드는 그들의 전체 사업 가운데서 구성원 개개인의 몫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자기에게 할당된 것 이상으로 사업의 몫을 차지하려는 '과점(engross)' 행위와 다른 구성원의 상품 구매 기회를 빼앗아가는 '매점(forestall)' 행위는 금지되었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불분명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세밀한 규칙이 제정되곤 했다. 작업 시간과 가격 그리고 상품의 질에 대한 규제는 개개 구성원의 권리 보장 제도의 일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길드의 구성원은 독점 유지를 위해 단결했고 함께 싸웠다.[32] 독점은 그들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점에 간섭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강력했던 중세의 교회마저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의 한 도시에 있는 성 요한 성당의 신부는 1498년 자신들의 경작지에서 수확한 밀과 호밀로 빵을 만들어 먹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제빵업자 길드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제빵업자 길드는 대가를 받고 자비를 베풀었다. 성당의 신부가 자기네 보리와 밀과 호밀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길드의 제빵업자 한 명을 파견했다. 성당은 이제 더 이상 성당에 빵을 판매하지 못하는 길드 조합원의 손해를 고려해 16마르크를 길드에 지불해야 했다. 길드는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골몰했다. 당연히 자신들 직업의 비결을 숨기려 애썼다. 1454년 베네치아의 법률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33] 어떤 기술이나 손재주를 다른 나라로 가져가 공화국에 손해를 끼치는 노동자에게

31) 포스탄 지음, 이연규 옮김, 앞의 책, 1989, pp. 308-310.
32) Huberman, 1936, op. cit., pp. 59-60.
33) Renard, 1918, op. cit., p. 36.

는 귀환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에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감옥에 가두어서 가족이 합심해서 그의 귀환을 설득하도록 했다. 그래도 그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를 살해하기 위한 비밀 조치를 취했다.

길드는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길드 내부의 경쟁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길드의 구성원끼리 서로 영업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책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34] 오늘날 당연시되는 영업 관행인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프랑스 코르비의 제빵업자 길드는 1443년에 누구라도 빵을 팔려고 손님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거나 어떤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60솔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길드 내부의 경쟁 방지를 위해서는 도덕적이지 않은 규제도 만들었다.[35] 다른 조합원의 상품보다 값이 싸거나 견고한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조합원을 앞서는 것을 막으려고 작업시간도 통제했다. 심지어 도시에서 독점권을 소유한 각 길드는 언제나 상품의 가격은 올리고 품질의 규격은 낮추려고 애썼다. 국왕의 통치가 강력했던 곳에서는 곤란했지만, 길드가 지배하는 도시에서는 길드가 독점권을 남용해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길드는 모든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기술의 발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테면, 13세기에 수력제분소(水力製粉所)가 수동제분소(手動製粉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축융(縮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도 축융업자 길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력제분소가 모든 축융업자에게 이용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축융업자 길드는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길드에게 수력제분소에서 축융된 직물은 사용하지 말도

34) Huberman, 1936, Ibid., pp. 60-61.
35) Painter, 1962, op. cit., pp. 230-231.

록 설득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다. 따라서 초기의 수력제분소는 길드의 영향력이 미약했던, 강력한 영주가 통치하던 곳에서만 설치될 수 있었다.

중세의 수공업자 길드에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도제, 직인, 장인)이 함께 조직되어 있었다.[36] 길드의 독점 유지를 위해 장인과 조수는 같은 단체에 속했으며, 함께 행동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날과는 달리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커지 않은 작업장에서 함께 생활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방법으로 교육 받았고, 같은 것을 믿었고,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도제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규칙이었다. 도제나 직인은 미래의 장인을 의미했다. 시간만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었다. 도제나 직인 속에는 이미 장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장인의 이익은 내일 장인(도제, 직인)의 이익이었다. 이것이 사실이었던 시절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같은 길드에서 함께 일하고 싸웠다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같은 직종의 모든 장인이 하나의 길드로 조직되었다. 이는 장인과 장인 사이의 권리가 동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세 초기 장인의 작업장은 그리 커지 않았고,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많지 않았다. 특권을 요구할 만한 부유한 장인이 등장하기 전의 일이었다. 이처럼 중세 수공업자 길드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결집시켰다. 도제에서 장인까지의 상승이 보장되었고, 장인과 장인 사이의 권리가 동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36) Huberman, 1936, op. cit., pp. 57-58.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부수적 기능이다. 길드의 독점을 유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길드의 도덕적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길드의 오랜 역사 속에서 비록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가적 현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한 단체로 조직되어 함께 싸웠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들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따랐다는 것은 신비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전지구적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그들에게 지역 환경의 파괴, 지역 주민의 일자리 불안정, 불안전한 노동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은 부차적인 일이다. 단지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될 때에만 고려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다. 중세 길드의 장인처럼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할 규칙을 정하고 준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노동과 환경문제, 사회적 차원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일쑤다. 경제적 영역은 뒤르케임(Durkheim)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경제 영역에서의 도덕적 기능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길드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뒤르케임(Durkheim)식 접근은 직업집 단의 부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길드의 도덕적 기능을 길드의 고유한 기능으로 파악하고, 도덕적 기능 그 자체의 연구에 치중했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을 창조해낸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했다. 이러한 태도는 직업집단의 형성과 도덕적 기능의 창조를 곤란하게 한다. 길

드의 도덕적 기능은 고유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직업집단의 형성과 도덕적 기능의 부활을 바라는 우리는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의 형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길드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형성되면 부가적으로 도덕적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뒤르케임(Durkheim)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 재검토 문제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4. 길드의 형성과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

길드에 대한 뒤르케임(Durkheim)의 연구는 길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상황,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아노미 상황을 직업집단의 부활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경제 영역에서의 도덕적 규범의 부재가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직업집단의 도덕적 기능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당시의 프랑스인은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제와 마찬가지로 길드도 독점과 특권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뒤르케임(Durkheim)으로서는 직업집단의 부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그는 직업집단 부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문제에 매달렸다. 길드의 폐해는 일시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길드는 오래 동안 도덕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그것이 바로 길드의 주요하고 고유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길드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에 방해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직업집단의 부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길드의 기능적 측면을 검토하는 데 머물렀을 뿐, 그러한 기능적 측면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

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했다. 이것은 길드의 형성 문제와 관련된다.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그 자체로 길드에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길드의 도덕적 기능이야말로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했으며, 길드의 부가적인 기능이었다. 그렇다면 길드의 형성 문제는 더 더욱 중요해진다. 길드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부가적으로 도덕적 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업집단의 도덕성도 마찬가지다. 직업집단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형성되느냐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따라서 직업집단의 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주장을 펼쳤을 따름이다.

뒤르케임(Durkheim)에 따르면, 직업집단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일단 만 들어지고 나면 도덕적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37]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 사회에서 동일한 생각·이익·감정·직업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과 만난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저마다 마치 어떤 충동에 휘둘린 것처럼 그들의 유사성의 흐름에 휩싸이게 된다. 사람은 서로가 끌려든다고 느끼며, 서로를 추구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사회 내에 확실한 특징을 가진 하나의 제한적인 집단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집단이 형성되고 나면, 그 집단에 특유한 도덕적 생활이 진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인간이 더불어 살며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결합에서 창조되는 전체의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전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전체에 친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행동을 할 때 이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도덕적 활동의 원천은 개인 너머에 있는

37) Durkheim, 1992, op. cit., pp. 23-24.

어떤 것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의식이 강화되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에 적용되어질 때, 이것은 어떠한 공식으로 변화한다. 이때 우리는 확립되는 과정에 있는 도덕적 규칙의 집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위적 차원에서의 직업집단 형성도 개인과 사회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다.[38]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39] 이러한 집단이 한번 만들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진화가 중단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우 리는 다시 길드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가 길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길드의 도덕적 기능이 길드의 형성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상인은 자유와 자치권을 원했다.[40] 상업은 신분·재산·이주·계약 등이 자유로운 곳에서, 그리고 기사나 농노가 아닌 자유민에 의해서 잘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자치권은 본질적으로 봉건적 지배와 상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은 자유와 자치권의 획득 과정에서 평화로운 방법보다는 투쟁적인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단결의 힘을 알고 있

38) 도덕적 활동이 개인에게만 맡겨질 때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직업집단이 형성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회에 좋다. 직업집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은 무정부상태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데 직업집단의 형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좋다(Durkheim, 1992, Ibid., p. 24.). 하지만 이때에도 뒤르케임(Durkheim)은 직업집단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직업집단의 자연적 형성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일만 없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만 주장한다.

39) Durkheim, 1992, Ibid., p. 40.

40) 민석홍, 『서양사개론』 제2판, 삼영사, 1997, p. 212.

었다.[41] 도로나 바다를 여행할 때 비적(보통의 강도와 통행세를 징수한 봉건 영주)이나 해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했다. 주시(週市)와 정기시(定期市)에서 교역을 할 때 더 큰 재력으로 흥정을 더 잘 하기 위해 단결했다.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봉건적 제약에 부딪히자 도시의 자유 획득을 위해 단결해 싸웠고,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상인 길드는 공동 이해에 기초해 만들어진 조직이다.[42] 길드 구성원의 권리 보호는 길드 존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난파(難破)나 약탈로 상품을 잃은 상인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조합원의 부채를 받아내기 위해 다른 도시민을 억류하기도 했다. 사망한 조합원은 함께 매장했고, 그 부인과 아이들은 부양했다. 조합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고, 종교 축제 후원이나 지방 교회 원조 활동도 했다. 또 길드는 조합원의 도시 내에서의 독점권을 보장했다. 조합원이 아니면 도시에서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외국 상인도 가져온 상품을 길드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높은 판매세를 지불해야 했다.

상인 길드는 당시의 외적 위험에 맞서 단결했다. 당시 상인 가운데 이러한 외적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산과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상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적 위험은 구성원의 의존성을 강화시켰고, 강한 단결력과 다양한 도덕적 기능을 창조해냈다. 특히,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봉건세력과의 투쟁은 구성원을 강하게 결속시켰는데, 그것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강한 의존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인에게 외적 위험은 구성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 획득을 위해 강력한 봉건세력과 싸워야 했던 상

41) Huberman, 1936, op. cit., p. 29.
42) Painter, 1962, op. cit., pp. 228-229.

인에게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존재였다. 상호 의존성이 강한 구성원은 각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들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상인 길드에서 나타난 도덕적 기능, 즉 조합원의 처지를 배려하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기능은 상인 길드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조합원 사이의 강한 의존성(이것은 대체로 평등한 상인의 처지와 당시의 외적 위험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이 없었다면 형성될 수 없는 기능이다. 이처럼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길드 구성원의 강한 상호의존성에 기초하고 있다. 직업집단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했다.

상인 길드는 일찍이 11세기에 등장해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 획득에 앞장섰다.[43] 수공업 길드는 이보다 늦게 나타나 13세기에 크게 성장했다. 수공업 길드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와의 경쟁에서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작업을 독점하기 위해 단결했고, 독점에 성공했다.[44] 제한된 시장과 공업의 미발달은 이러한 선택을 강요했다. 도시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허가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수공업 길드의 목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길드 내에서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다.[45] 제한된 시장 내에서의 길드 내 경쟁은 치명적 위험이었다. 따라서 길드는 생산과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노동시간과 상품의 질, 제조방법과 가격 등을 통제했고, 조합원 사이의 모든 경쟁을 금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조절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주변 농촌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

43) 민석홍, 1997, 앞의 책, p. 213.
44) Huberman, 1936, op. cit., p. 59.
45) 민석홍, 1997, 앞의 책, p. 213.

하게 했다.

수공업자도 상인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위험에 맞서 단결했다. 상인 길드가 주로 봉건제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단결하고 싸웠다면, 수공업 길드는 내외적인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단결하고 싸웠다. 이러한 투쟁은 상인 길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공업 길드 구성원 사이의 강한 상호의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업의 발달 수준이 낮았고, 시장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경쟁의 위험은 그들을 강하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공업 길드 초기의 여러 조건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선, 외부의 경쟁에 맞선 단결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제(직인)와 장인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이다. 도제(직인)가 장인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드의 이익은 현재의 장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인(도제)에게도 이익이었다. 도제와 장인 사이의 멀지 않은 거리는 수공업 길드 구성원의 강한 결속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었다. 그리고 내부의 경쟁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장인과 장인 사이의 평등한 관계에도 의존했다. 특별히 큰 규모의 장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모든 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은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로부터 자기 도시 내에서의 독점권을 지켜냈고, 같은 조합원 사이의 경쟁을 규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수공업 길드의 도덕적 기능(도제·직인과 장인 사이의 상호 배려, 집합적 이해의 우선적 고려, 개인의 이기주의 억제 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나왔다. 경쟁의 위험에 노출된 수공업자는 강하게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길드로 조직된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강제했다. 분

열과 결속은 생사(生死)의 절대적 기준이었고,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결속을 강화시킬 수 없었다. 결속과 권리 보장을 강제하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길드의 도덕적 기능을 창출해낸 근본적 원인이었다.

이제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 부 활 계획의 핵심인 길드의 도덕적 기능은 구성원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초했다. 이것은 투쟁의 주된 내용이 달랐던 상인 길드와 수공업 길드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역사적 사실이다. 상호의존성은 외부의 위험과 내부의 평등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의 위험이 강력할 때, 즉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때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은 강화된다.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을 때, 즉 최고의 지위까지 개방되어 있고, 우두머리 사이의 불평등도 심하지 않을 때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은 매우 강화된다. 이러한 점은 길드의 도덕적 기능의 소멸 과정을 검토해보아도 드러난다. 길드 제도의 전성기였던 13~14세기를 지나자 길드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장인들 사이의 평등이 깨지기 시작했다.[46] 번창한 장인은 큰 세력을 형성했고, 그렇지 못한 장인을 경멸했다. 결국 자기들만의 '큰 길드'를 형성했고, 다른 장인을 자신의 직인으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 보호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는 시대도 끝났다. 도시에서의 독점권을 확보한 장인은 더 이상의 장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인이 되는 길을 사실상 차단해버렸다. 장인의 아들이나 사위가 아니면 장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직인은 그들만의 조합을 결성해 대항했지만, 이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장인에 의해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다.

46) Huberman, 1936, op. cit., pp. 65-68.

이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강력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수 없었고, 장인은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길드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길드의 도덕적 기능을 약화시켰고, 전성기 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이미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길드의 모습은 소멸했다. 뒤르케임(Durkheim)처럼 18세기까지 길드의 역사를 추적해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집단이 도덕적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해야 한다. 그러한 상호의존적 관계가 구성원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직업집단은 더 이상의 도덕적 기능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아노미 상태를 극복할 대안으로서의 직업집단론은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초해서 접근할 때 비로써 현실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뒤르케임(Durkheim)은 근대사회의 아노미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업집단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특히, 경제 영역의 아노미상태가 심각했는데, 새로운 경제생활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그에 걸맞은 도덕적 규범은 아주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직업집단은 도덕적 규범을 실행할 구체적 실체로 여겨졌다. 이러한 주장은 길드에서 차용한 것이다. 뒤르케임(Durkheim)은 직업집단 재구성에 대한 편견(조직 이기주의, 정치적 구체제의 일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길드를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그의 길드 분석은 편견의 불식을 넘어 사실상 직업집단 재구성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그는 직업집단 재구성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룬다. 심지어 그것은 자신과 같은 사회학자의 임무가 아니고, 정치가의 임무라고까지 한다. 직업집단은 자연스럽게 존재(물론, 당위적 존재도 무방하다.)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덕적 기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의 등장은 역사적 상황이나 구성원의 조건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조직의 도덕적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나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직업집단의 재구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뒤르케임(Durkheim)조차도) 직업집단의 역사적 뿌리인 길드(직업집단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길드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의 등장과 도덕적 기능이 어떤 역사적 상황과 구성원의 조건에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뒤르케임(Durkheim)은 물론이고, 직업집단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 다른 많은 연구자들도 이러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조직의 도덕적 기능은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결정되고, 또 상호의존성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당시의 역사적 상황(위험)이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강력한가, 또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얼마나 평등한가에 따라서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은 결정되고,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높아지며, 조직은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집단의 도덕적 기능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는 이러한 점, 즉 오늘날의 상황(세계화의 위험)이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강력한 것인가, 또 구성원(실업자・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는 얼마나 평등한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검토 없이 뒤르케임(Durkheim)처럼 단순

히 도덕적 기능에만 매몰된다면 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도덕적 기능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뒤르케임(Durkheim)의 직업집단론의 문제점만을 지적했을 뿐이다.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집단' 부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현실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천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곧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사설 속으로: '갑을문화'」, 『한겨레신문』, 2013년 5월 28일자 27면.

2. 논문

김태근,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7호, 2013, pp. 407–442.

김태수, 「뒤르케임과 민주주의: 직업집단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가을/겨울, 2008, pp. 289–311.

민문홍, 「옮긴이 해제: 에밀 뒤르케임의 생애와 사상」,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pp. 607–735.

뒤르케임(뒤르케임(Durkheim), E.) 지음, 민문홍 옮김, 「제2판 서문: 직업집단에 관한 몇 가지 고찰」(원제는 "Préface de la seconde éedition: Quelques remarques sur les groupements professionnels" 1902),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pp. 15–60.

Giddens, A., "Durkheim's political sociology", *EMILE Durkheim: Critical Assessments*, Edited by Peter Hamilt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0[1971], pp. 184–219.

Turner, S. B.,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Interpreting Emile Durkheim",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Translated by Cornelia Brookfie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92, pp. xiii–xlii.

3. 단행본

민문홍, 『사회학과 도덕과학』, 민영사, 1994.

민석홍, 『서양사개론』 제2판, 삼영사, 1997.

포스탄(Postan, M. M.) 지음, 이연규 옮김, 『중세의 경제와 사회』(원제는 *The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in the Middle Ages* 1972), 청년사, 1989.

Bauman, Z.,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Ltd., 2011.

Bland, A. E., Brown, P. A. and Tawney, R. H., *English Economic History, Select Documents*, Compiled and edited by Bland et al., London: G Bell & Sons, 1914.

Durkheim, E.,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Translated by Cornelia Brookfie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92[1957].

Huberman, L., *Man's Worldly Goods: The Story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36.

Painter, S., *A History of the Middle Ages: 284~1500*,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Renard, G., *Guilds in the Middle Ages*, London: G Bell & Sons Ltd., 1918.

[Abstract]

A Study on the Relevancy of E. Durkheim's Theory of Occupational Associations

Baek, Seung-Dae · An, Tae-Jun

This study reviewed the relevancy of Durkheim's theory on occupational associations in today's society critically. He proposed the reconstruction of the occupational associations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anomic state of modern society. Occupational associations were considered as specific social groups to carry out the function of providing moral norms which were necessary to cope with the anomic state. His proposal was based on the functions of historical guild.

His discussion on the relevancy of occupational associations was not sufficient. Especially, He did not discuss their moral aspect enough. The moral aspect or functions of any social organization may be associated with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ocial relations of its members. He did not deal with the issue adequately.

Historically, guild had clearly the moral functions. But they were not the original feature of guild. They emerged as a means to achieve guild's main objective, that is, the strong solidarity or integration among its members. In order to maintain the strong solidarity, guild had to guarantee its members' rights. They were significantly equal. This situation enhanced the interdependence among them. Their interdependence was a basis to achieve their common goal with strong solidarity. Thus, the moral functions of guild did not emerged naturally, but w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al circumstance to which guild members faced and their interdependence.

Key words : occupational association, relevancy, anomic state, guild, moral function, interdependence

백승대(주저자)
소속: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53-810-2254
전자우편: sdbaek@yu.ac.kr

안태준(교신저자)
소속: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45-1번지 301호
전화번호: 054-812-1910
전자우편: anti210@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11월 04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